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시민과 지역 작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역과 세계 아우르는 광주만의 정체성 확립을

리잇! 스무살 광주비엔날레

<하> '라운드 테이블' 대안과 미래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혁신위원회는 '변화'라는 커다란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광주 시민과 지역 작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내놓은 대안은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선결과제는 지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 확립이다. 이는 지역 작가와 전문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등 사업을 줄이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정체성의 재정립=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이 혼미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민주화와 여당 남도의 정서를 접목해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올해도 세계의 정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전시를 하면서 정작 그 안에 광주만의 역사와 정체성은 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 세계 350여 개에 달하는 비엔날레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주비엔날레만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나상욱 광주미술 회장은 "광주 시민과 작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큰 틀에서 광주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담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조

광주시민과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 선정 디자인비엔날레·폴리 프로젝트 버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해 내실 기할 때

직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앞서지 않고, 또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안도 나올 수 없다"며 "그동안 행사처럼 단순하게 세계적 이슈를 광주로 옮겨올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과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는 "패턴화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비엔날레에서도 볼 수 있고 더 이상 새로움을 줄 수도 없다"며 "지역 정서를 읽고,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도 "외국 감독에게 의존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정체성과 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말했다.

재단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무게감을 가진 문화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시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아닌 명실상부한 독립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후 이사진도에 대해 물갈이해야 한다. 그동안 이름만 올려놓고 의견 다른 의견을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던 이사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책임감 있게 정책 추진을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과의 공동성장=광주비엔날레라는 세계적 브랜드 가치와 상반되게 정작 광주에는 무엇을 남겼느냐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비엔날레의 성장이 곧 광주와 지역 인재들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위탁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폴리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버리고,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이남씨는 "이제는 스태프를 연구하고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내실을 기할 때"라고 밝혔다.

재단이 매년 95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 큐레이터 코스를 운영해왔지만 정작 지역 내 인재들을 키우지는 못했다. 또 지역 작가들에게 본전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지금까지 2차례 포트폴리오 공모를 했지만 이마저도 뒤늦은 감이 있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와 폴리 프로젝트 등 사업을 줄이면 행사가 열리지 않는 해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역량있는 인력들에게는 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다른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점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씨는 "지역 작가들이 본 전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시 기간 광주 시립미술관은 물론 광주의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작가들이 비엔날레와 관련된 전시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광주의 모든 작가와 기획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과 광주시, 각 구청이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동 전문위원은 "비엔날레라는 것이 난해하고 실험적이다 보니 정작 시민들은 제외되고 전문가들끼리만 소통하는 행사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관객들이 이 같은 전시를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열리지 않는 해에 주제를 정하고, 감독과 작가가 주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녹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민과 작가들의 관심=지난 6일 공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 저조였다. 재단 측은 홍보 미흡도 문제지만 이미 광주비엔날레를 관심 밖에 둔 광주 시민과 작가들도 문제다. 향후 광주비엔날레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오는 12월 중순 광주 미술인들과 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이제는 비엔날레를 할 틈을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과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14일 환우·주민 위한 '소록도 음악회'

음악 영재들이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소록도에서 이색 연주회를 연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4일 고흥군 국립소록도 병원 로비에서 병원 환우와 주민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소록도 음악회'를 연다.

'소록도 음악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 일환으로 전남문화예술재단과 현대차정몽구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이 지원 중인 음악 영재들로 구성된 연주단체인 '온드림 앙상블'과 전남도립국악단과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차례로 무대를 선보인다.

온드림 앙상블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박쥐' 서곡을 비롯해 베버의 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등을 연주한다. 또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주며, 전남도립국악단이 민요 '남원산성' '진도아리랑'과 가야금 병창으로 '별지집이 노래'와 '춘하추동'을 선보인다.

한편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소록도에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벽화조성, 소록도병원 환우 및 지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문의 061-280-58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려한 '오고무' 보러 오세요

도립국악단 14일 목포공연

화려한 오고무, 첼로와 국악의 만남.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 정기공연 '생명의 땅, 거리의 소리'가 14일 오후 7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스타 국악인 김용우(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12가사 이수자)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은 화려하고 웅장한 오고무 무대로 시작한다.

이어 첼리스트 김동규씨가 협연자로 나서 첼로와 가야금 4중주가 어우러진 '오월의 노래'를 선사하며 조 한씨가 25현 가야금 협연으로 '찬기파랑'을 들려준다.

또 국악단 무용부가 삼학도의 전설을 담은 가무 연희극 중 춤극 '학이여 사랑아'를 통해 학의 몸짓을 만나며 김용우씨의 국악가요 '너영나영'과 '장타령'을 들려줄 수 있다.

그밖에 피리 연주자 정재국(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예능보유자)씨가 피리독주 '상림산', 25현 가야금곡으로 변주한 '궁타령의 맛'을 김계옥(중대향 국악과 교수)씨의 연주로 들려볼 수 있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수험생과 동반 1인까지 5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다. 사랑티켓(www.sati.or.kr) 회원(24세 이하, 54세 이상)은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문의 061-280-5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15일 '일생의례 상차림' 재현·전시

아기가 태어나기 전 순산을 비는 삼신상부터 혼례를 올릴 때 차리는 혼례상 등 사람 일생 동안의 일곱 가지 의례 상차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무형문화재 일생의례 상차림 재현 및 전시'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시지정 무형문화재 남도

의례음식장 17호 최영자, 이애섭 선생이 참여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해지는 의식인 통과의례의 특별한 상차림인 삼신상, 백일상, 돌상, 관례·계례, 혼례, 큰상, 주안상 등 7상차림을 재현한다.

오후 2시부터는 전통음식인 단술과 밀떡을 맛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